



태국의 식품시장을 이끌 건강식품

방콕지사

CPF의 건강식품군 확장 계획

- 올해 태국 식품시장의 핫 키워드는 ‘건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 최대 재벌그룹 Charoen Pokphand(CP)의 자회사 Chareon Pokphand Foods Plc(CPF)가 2019년 식품 사업부분에서 1,300억 바트(약 4조 6천억 원) 매출을 목표로, 건강식품 분야의 범위를 늘리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식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이다.
- 이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2019년 식품시장 신제품의 30%는 건강식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러한 현상은 뷰티만큼이나 건강과 웰빙에 신경 쓰는



태국인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태국 소비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건강식품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CPF는 중국,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세계 16개국에 지사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태국에서 30개국 이상의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1분기 안에 높은 섬유 곡물의 채식 식품, 두부와 채소, 기능성 음료 및 유 기능 주스 등과 같은 ‘Smart’ 제품군을 출시할 계획이다.

고품질의 혁신적인 식품 개발에 나선 CPF

- 보다 다양한 건강식품의 개발·생산을 위해 CPF는 태국 आयुताय(Ayutthaya)에 위치한 연구개발소(R&D)에 13

CPF의 다이어트 식품 라인



“ HEALTHY DIET
แคลอรีต่ำ ที่ต้องบอกต่อ ”

억 바트를 투자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제품 개발에 나섰다. 연구개발소는 2017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식약청(FDA)의 인증을 받았다.

- CPF는 이외에도 암세포를 억제하는 천연성분, 식품 보존을 위한 나노 캡슐, 프로바이오틱스 및 미생물 함유 나노캡슐 등 노인, 병원 및 군인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생산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연구개발소에서는 아직 상업적으로 판매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혁신 제품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CPF는 이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식품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CPF가 생산하는 건강식품은 다양한 형태로 태국 전역의 유통 매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현지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하고 있어 이러한 현지 상황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태국은 수입되는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식약청 등록이 까다롭고, 광고 규제가 높아 초기 진출이 쉽지 않은 시장이다. 따라서 현지 최대 식품기업의 제품과 맞서 경쟁하기보다는 한국적 특색과 차별점을 강조한 건강식품의 시장개척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태국 현지 식품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태국의 건강 기능성 식품의 수요는 점점 높아질 것이며, 태국 정부 또한 설탕세, 소금세 등 국